

한국 전통마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경남 산청 단계마을을 중심으로 —

李奎成

(울산대학교 교수)

金一鎭

(영남대학교 교수)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한국에서 과거의 유구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전통마을은 한국건축사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숨어있는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분석이 가해질 때 한국건축역사를精緻하게 짚 수 있는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남지방에는 아직도 많은 전통마을이 옛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한 채 남아 있어서 건축역사의 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마을이 河回(안동)와 良洞(경주)이며 그 외에도 무섬(영주), 濼池(영덕), 妙洞(달성), 한개(성주), 南沙(산청) 등이 있고, 댐에 수몰되었으나 宜仁(안동)을 들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인 경상남도 산청군의 丹溪里도 영남지방의 우수한 전통마을 중 하나로서, 지금부터 500년이상 전부터 이상적인 주택지로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말기의 건축적 상황을 잘 보존하고 있는 단계마을을 선택하여 마을 형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변동을 파악하고 19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택지의 분화과정과 마을길

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실증자료를 통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정을 통하여 전통마을의 실체를 좀더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방법

전통마을의 실체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주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작성된 공문서들을 기본자료로 이용하였으며, 현재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마을과 주거에 대한 실측을 행하였으며 보조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문화인류학에서 이용하는 文化記述的 인터뷰(Ethnographic interview)를 행하였다. 분석과정은 우선 몇개의 유의한 기준년도를 설정하고 기준년도의 대지와 길의 상황을 도면화하고 이에 따른 제반 변화의 양상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의 종류와 이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구지적도와 구토지대장 : 1913년과 14년에 걸쳐서 작성되고 1979년까지의 소유권 및 지적의

변화를 기록해 오다가 새로운 도면과 대장으로 대체된 국가문서로서 단계리의 연구대상지역은 가로 51cm, 세로 41cm의 도면 4장과 臺帳 5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의 기본적 자료가 된다. 산청군청에 소장되어 있다.

(2) 건축물관리대장 : 신등면사무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건립년도에 대하여 적혀 있으나 사실과의 불일치가 많아서 보조적인 자료로만 이용하였다.

(3) 재산세과세대장 : 역시 신등면사무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단계리거주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세액을 기록한 것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누락이나 謬記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이용했다.

(4)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 : 조선시대 단성현에서 작성하여 단성향교에 보관되어 오던 호적대장으로 1678년부터 1789년까지 111년 사이의 13개 年을 조사기점으로 각각 단성현 각 面과 洞 주민의 호적이 실려 있다. 단계마을에 존재하던 有力姓氏의 존재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1678년, 1717년, 1735년, 1762년, 1789년의 대장을 분석하였다.

(5) 기타 문헌자료 : 보조적 자료로 대동여지도, 한국도지도 등이 이용되었다.

(6) 마을배치실측도 : 1990년에서 92년에 걸쳐 필자가 조사작성하였는데 1/1200축척의 지적도를 바탕으로 하여 길과 담장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7) 정보제공자(informant)가 제공하는 정보 : 서류나 도면으로 조사되지 못하는 마을사람들의 일상생활상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정보제공자를 면담하였으며 과거 길의 이용실태, 지명의 변화, 시장지의 변화 등에 관하여 특히 도움을 받았다.

2. 마을의 개관

2-1. 마을의 역사와 특징

단계리가 속한 신등면은 조선중기와 후기를 걸쳐서 丹城縣 관하 신등면으로 존속하다가 1914년 4월 1일 동북쪽 인근의 범물면을 합병하여 산청

군의 신등면이 되었고 면소재지를 단계리에 두게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단계리가 최초로 인간의 정착지로 이용된 것은 주민면담에 의하면 1000년 이상 된다고 하며 기록상 확실한 것은 서기 1450년 경부터이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단계는 山淸과 三嘉를 잇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이전의 縣治임을 나타내고 창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남쪽 인근 笠岩山에는 峰巒臺, 서쪽인근 碧溪에는 驛站이 나타나 있다.

縣소재지의 위치는, 향토사가(金相朝씨)의 고증에 의하면 마을에서 내를 건너 동쪽으로 3-4km 떨어진 도들(道坪)에 있다가 현재의 신안면 외고리로 옮겨 갔다고 한다. 창고가 있었던 사실은 호적대장에 倉內라는 마을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봉수대와 역참의 존재도 호적대장의 주민 신분에 봉수군이나 驛吏가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일치된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단계는 조선시대에 행정 및 교통, 통신의 요충지였으며 또한 인근에서 나는 농산물의 집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계에는 일찍부터 5일장(4, 9일)이 서는 곳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인근에 넓은 들이 있어서 米作의 수확이 많았으므로 부자마을로 인근에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호적대장에서 보면 마을의 소분할이 조선시대에는 1리, 2리, 3리 또는 상촌, 중촌, 하촌, 島內(섬안 : 지금의 남단)로 나뉘어지는데 일제기에 행정의 편의상 강의 서쪽을 방위에 따라 동단, 서단, 남단으로 하고 강의 동쪽을 남단으로 하였다고 한다.

단계에는 일찍부터 지방의 양반세력인 유씨, 권씨, 박씨에 의해서 거주되어 소위 씨족마을의 특징인 宗法制度와 유교적 생활습관이 확립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특징은 현대에도 그 잔영을 남기고 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은 박씨고가로 170-18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약 100년 된 집으로 박노관씨 집이 있고 그 외의 주택은 건립연대가 떨어짐을 볼 때 여러 세기의 정착기간 동안 주택들의 개축이 자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입지와 형국

마을은 강의 동쪽에 동·서·북단(동단, 서단, 북단)으로 이루어진 중심마을과 강 서쪽의 남단을 합하여 단계리가 되어 하나의 실체를 이룬다. 동·서·북단 마을은 동쪽의 양천강과 서쪽 들미산의 경사면의 제한을 받으면서 가장 넓은 곳의 폭이 280m가 되고 남북으로 길게 반월형으로 형성되었고 지형은 거의 평탄하나 마을의 입구 쪽이 경사져 있다. 남단은 강 건너 제방에서부터 넓은 들을 향하여 평지에 위치한다. 동·서·북단마을은 형국이 배모양(舟形)인데 배의 사공역할을 하는 돌부처가 강옆에 있고 돛대 두개가 남북에 각각 1개씩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길가에 있어서, 마을形狀이 마치 財貨를 가득 실은 배의 모습과 같다고 한다. 형국이 배이므로 우물짜는 것을 가능한한 삼가하다가 日政末부터 각자 파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의 소형국은 主山을 배경으로 한 左靑龍 右白虎의 結構는 갖추지 않았으나, 확대된 형국으로 볼 때 북서쪽의 黃梅山이 주산이 되고 황매산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두 산줄기가 靑龍과 白虎가 되며 앞쪽의 입암산을 안산으로, 앞내를 水口로 하면 명당의 형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3. 마을현황

조선후기 유수한 씨족지배마을로 발전했던 단계는 현재에 와서 신등면의 소재지이기는 하나 농

업의 상대적 비중저하와 인구의 유출로 전통마을의 특색이 사라져가고 농촌지역의 평범한 면소재지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5일마다 열리는 시장도 대도시(진주)로의 장보기가 편해짐에 따라 쇠퇴하였다.

1989년의 단계는 전체 호수가 327호, 인구는 1307인이었으며 농가호수는 전체의 61.8%인 202호였다. 그러나 1993년 7월 현재의 호수는 250호로 4년전보다 57호가 줄어들어 서부경남 농촌지역의 일반적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을의 큰길을 따라 요지에는 철근콘크리트 2층건물들이 들어서고 전통적 기법으로 지어졌던 주택들의 개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조선시대의 모습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마을 안쪽의 부농주거들에서만 찾을 수 있다. 1989년 필자가 이 마을 전통주거의 연구를 위해 주택실측을 할 때, 전통적 기법에 의해서 지어지고 본래의 모습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는 주택만을 고른 결과 63채가 되어 전체 주택수 260채의 24.2%에 지나지 않았다.

마을내의 주요도로는 수차에 걸쳐서 차의 통행이 편리하도록 직선화하고 폭을 넓혀서 넓은 곳은 12m, 좁은 곳은 7m로 확장하여 전체 형태를 사다리형으로 만들었다.

현재의 도로망과 주택의 배치, 소영역의 명칭을 마을배치도(1989년 작성)로 표시하였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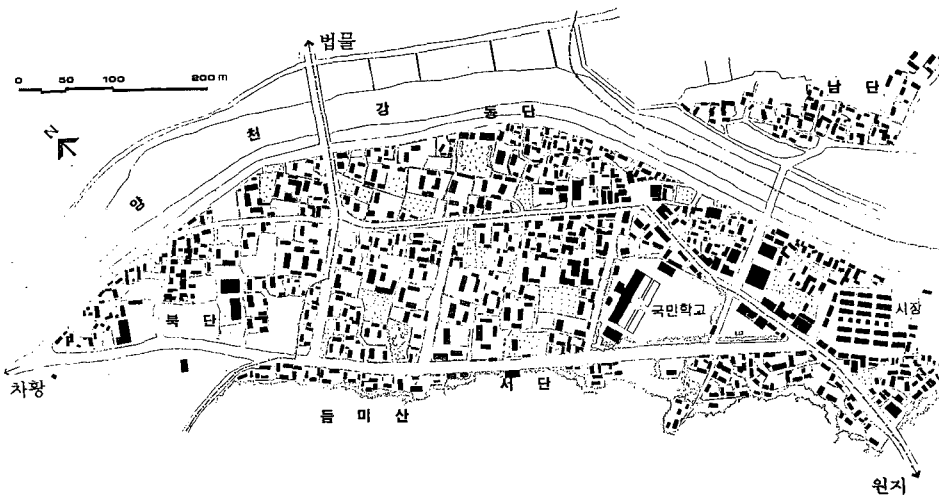


그림. 1 단계마을 배치도

3. 거주성씨의 변동

3-1. 조선시대의 변동

주민 면담을 통해서 이 마을의 가장 선주민을 알아본 결과 1,000년이상 전부터 주민이 있었고 성씨가 알려진 최초의 씨족은 茂松尹氏로서 씨족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후 旆州柳氏가 윤씨의 사위로 최초 入郷하여 씨족이 번성하였다고 한다. 면담과 권씨족보(安東權氏忠康公派譜)에 의하면 서기 1450년경 權繼祐라는 분이 진주 유씨가 살고 있는 마을에 유씨의 사위로서 入郷해서 씨족이 번성하였으므로 기록상의 마을역사는 500년 이상 되는 셈이다.

단성향교에 보관되어 오던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에는 1678년부터 1789년까지 111년 사이의 13개 年(1678, 1717, 1720, 1729, 1732, 1735, 1750, 1759, 1762, 1780, 1783, 1786, 1789)에 각각 기록된 단성현 각 면과 동의 주민의 호적이 실려 있다. 단계마을에 존재하던 有力姓氏의 존재와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1678년, 1717년, 1735년, 1762년, 1789년의 대장을 분석해 보았다. 지금의 단계리에 해당되리라고 추정되는 마을을 선택하여 전체 호구수를 세고 그중 양반호구를 성씨별로 분류해 본 결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1〉 연도별 호적상의 양반호구 분포(단위 : 호)

연도	마을명칭	진주 안동 밀양 기타				계	전체 호수
		유씨	권씨	박씨	성씨		
1678	단계, 도내	21	16	-	8	45	178
1717	단계촌, 도내촌	23	22	-	1	46	186
1735	단계상촌, 단계중촌, 단계하촌, 도내	14	21	2	15	52	137
1762	단계상촌, 중촌, 하촌	16	32	1	20	69	171
1789	상촌, 중촌, 하촌	10	45	3	20	78	172

여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마을전체의 호수가 1735년의 경우를 빼고는 거의 비슷한 수(171-186호)로 유지되면서 양반호구수는 1768년의 45호에서 1789년에는 78호로 증가하는 점에 의문이 생

긴다. 조선후기에 있어 전반적으로 전인구에서 양반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일반적 정설에 의할 것으로 보아, 더욱 상세한 판단은 보류하고 양반호구 자체의 변화를 해석해 보았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을을 선점했던 유씨는 차차 그 세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1450년경 입향한 권씨는 1717년에 유씨와 대등해지며 1735년 이후에는 가장 유력한 씨족으로 변화해감을 알 수 있다. 박씨는 1735년의 대장에 朴尚悌와 박찬원의 2호가 최초로 등재되었는데 1789년까지도 아직 세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호적에 의하면 박상제와 박찬원의 모가 각각 안동권씨로 되어 있어 이들 두사람은 母邊의 토지와 노비를 分給받아 이 마을로 이주해 왔으리라고 추정되는데 이 사실은 주민면담내용과 일치한다.

흥미있는 사실로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이 마을의 최초거주 성씨로 이야기되고 있는 茂松尹氏가 1789년 대장에 양반호구로서 1호 등재된 점이다. 윤씨는 1678년 이전에 이미 이 마을에서 타지로 나가거나 失勢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호 밖에 안되지만 윤씨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마을이나 주변지역에 윤씨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뒷받침된다.

妻家가 있는 마을에 입향하여 동성의 씨족이 발전하는 과정은 조선시대 발전했던 우수한 씨족 마을들의 일반적인 양상이며, 이것은 조선중기까지도 재산(주로 토지와 노비)의 상속이 장자우대가 아니고 아들딸에게 재산을 균분상속하는 습관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3-2. 일제기 이후의 변동

1789년까지도 세력이 약하던 박씨 씨족은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서 매우 번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확인은 근대에 기록된 토지소유와 가옥에 대한 자료의 조사에 의해 가능하다. 토지대장을 근거로 1914년의 마을 전체대지에 대한 박씨 소유를 보면, 전체 필지수 대비 21.8%, 면적 대비 30.4%나 되어 권씨보다도 소유대지 면적에서는 앞서고 있다. 같은 때 권씨는 필지수 대비 26.7%로 박씨를 앞서고 있으나 면적 대비로는 27.9%가 되어 박씨에 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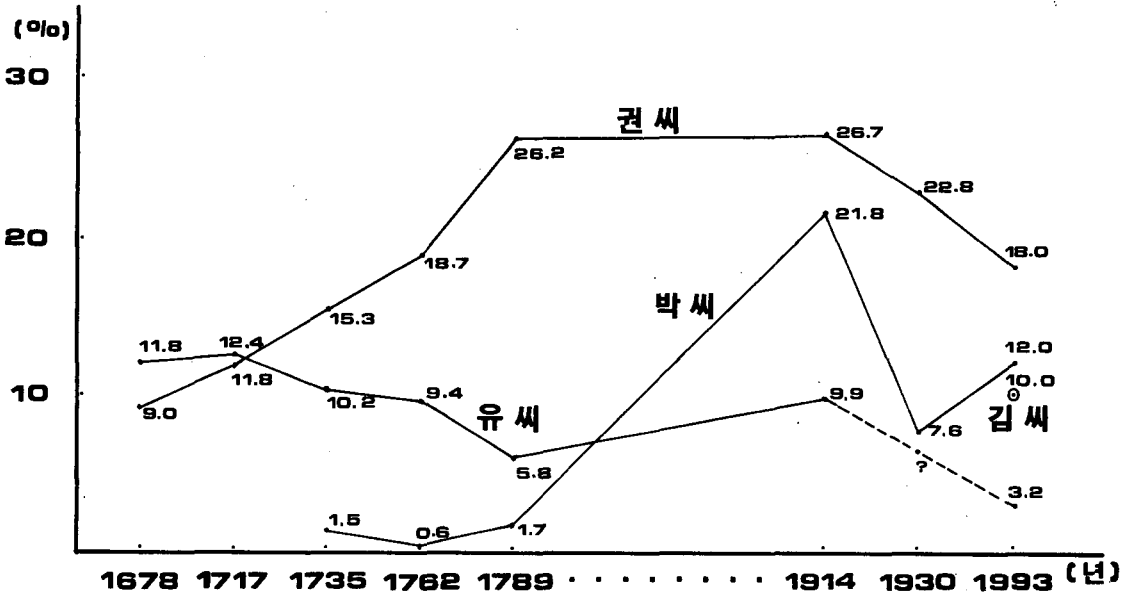


그림. 2 우세성씨의 전체에 대한 백분율 변화

1789년까지도 어느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던 유씨가 근대에 와서 박씨보다 세력이 약해진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1914년까지도 유씨는 아직 대지소유에 있어 필지수 대비 9.9%, 면적 대비 5.0%를 소유한 주요한 성씨로 남아 있었다.

善生永助가 1930년경 조사한 조선의 취락¹⁾에도 단계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 소위 同族部落인 단계에는 총호수 342호중 권씨호구가 전체의 22.8%인 78호, 박씨호구가 7.6%인 26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씨의 존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1993년 면사무소에서 입수한 가구분포에 의하면 단계리의 전체가구 250가구 중 권씨는 전체의 18%인 45가구, 박씨는 12.0%인 30가구, 유씨는 3.2%인 8가구로 집계되었고 기타 우세성씨로서 김해김씨가 전체의 10.0%인 25가구로 되어 있다. 기타 56.8%의 142가구는 여타 성씨이다. 1989년에 조사한 전체가구수가 327호인데 비하면 1993년에는 인구가 23.5% 줄어든 사실을 알 수 있고, 권씨와 박씨호구가 차지하는 전체호구수에 대한 비율도 약화되어 전통마을의 특성 중 하나인

우세성씨의 지배도 약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1914년의 대지소유에 대한 각 성씨의 필지수 소유비를 호구수의 비로 전환하여 1678년부터 1993년까지 조사가 가능했던 연도별로 각 성씨 호구수의 백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되어 단계 거주민의 호구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4. 대지의 분화과정

세월의 흐름에 따라 田과 畓이 대지로, 혹은 대지가 전이나 답으로 지목변환이 생기며, 각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분할되거나 병합되기도 한다.

노·일전쟁의 결과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일제는 조선의 토지제도를 근대화하여 식민지수탈을 더욱 용이하게 하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합병 전인 1906년에 이미 구 한국정부를 시켜서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하여 토지와 가옥의 매매, 전당, 증여 및 교환 등에 대한 증명을 수여하는등 토지조사의 준비를 추진시켰다. 그리고 본격적인 토지조사는 1910년 3월 구 한국정부가 토지조사국을 개설함과 동시에 착수되었으며,

1) 善生永助, 조선의 취락 후편, 조선총독부, 1933. p. 480.

동 업무는 그해 8월 한국합병과 동시에 조선총독부에 이관되고, 그해 10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일체의 사무가 계승되었다. 이어서 조선총독부는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발표하고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여 1918년 11월에 완료를 보게 되었다.

현재 경상남도 산청군청에 보관하고 있는 구 토지대장과 구 지적도는 “토지조사령” 발표 이듬해인 1913년과 1914년 사이에 査定작업을 완료한 후 1979년까지의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과 지적의 변동사항을 기록해 놓고 있다. 또한, 신등면 사무소에서는 단계리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세과 세대장등을 보관 하고있는데, 이것들은 대지의 분화와 길의 형성과정을 밝혀내는 중요한 보조자료이다.

단계마을의 토지를 사정하기 시작한 1913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대지와 전답 그리고 임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에 적어도 1913년 이전의 마을 배치와 주거지 현황,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등에 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토지의 상황변화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는 세 시기-즉, 토지에 대한 사정을 시작한 1913-14년과 제방, 도로등의 건설로 인접대지와 전답에 영향을 미친 1922년과, 같은 이유로 1938년을 분석의 기준년도로 설정했다.

4-1. 단계별 대지의 분화과정.²⁾

대지의 분할과 병합은 기존의 마을 공간구성체를 변화하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단계마을의 대지분화는 규모가 큰 대지의 일부가 별개의 대지로 분할되거나, 한 가구가 사용하던 큰 규모

의 대지에 다른 주택들이 신축되고 대지소유권이 몇 가구로 이전됨에 따라 대지가 나뉘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동족마을의 일반적인 발전방식인 분가, 그리고 노비층의 독립에 의한 주거신축, 또는 외부인의 유입 등에 의해 발생한다. 대지의 분할에서 규모가 큰 대지가 분할되어 균질하고 밀도가 높은 주거지군의 집합체로서 마을의 공간구조가 변화된다.

하나의 대지가 몇개의 대지로 분화되는 경우 각각의 대지가 별도의 입구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진입유형이 변하게 되고 주거와 셋길의 관계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대지의 분화는 마을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³⁾

(1) 1914년 이전 상황(1단계)

조선시대의 대지점유에 관하여는 아직 자료가 없으므로 지적도가 완성된 1914년을 분석의 원점으로 한다. 대지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마을의 길은 이전 그대로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지적도에 나타나는 대지의 필지 수는 161개이며, 이중 규모가 큰 대지는 마을의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고, 마을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규모가 작은 미세형의 대지가 서로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세형의 대지는 하천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외거노비와 상민의 주거지군으로 추정⁴⁾된다. (p. 15의 그림. 3 참조)

(2) 1922년의 상황(2단계)

1914년부터 1922년도까지의 변화를 보면 161필지의 대지중 23필지가 각각 지목변경되거나 분할이 되는데, 그 결과 새로이 대지가 7필지, 하천과 제방부지 23필지, 전과 답 2필지가 나타난다. 또한 전과 답의 경우에는 10필지가 대지로 지목변환된다. 이와같은 현상은 길과 제방 건설 때문이며, 특히 1920년 대홍수⁵⁾ 이후 1922년에

2) 4장 대지의 분화과정과, 5장 길의 형성과정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동·서·북단으로 이루어진 중심마을로 하고 남단은 제외시켰다. 남단은 강을 건너서 중심과 떨어져 있으며 대지나 길의 변화가 미미하고 마을에서 차지하는 비중(1989년에 인구수 및 가구수 대비 전체의 약 9%)도 작다.

3) 한필원, 농촌 동족마을의 공간구조의 특성과 변화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2. p131.

4) 현 신등면 부면장 김씨(61세)의 증언에서도 확인됨.

5)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庚申水破”라고 하는데,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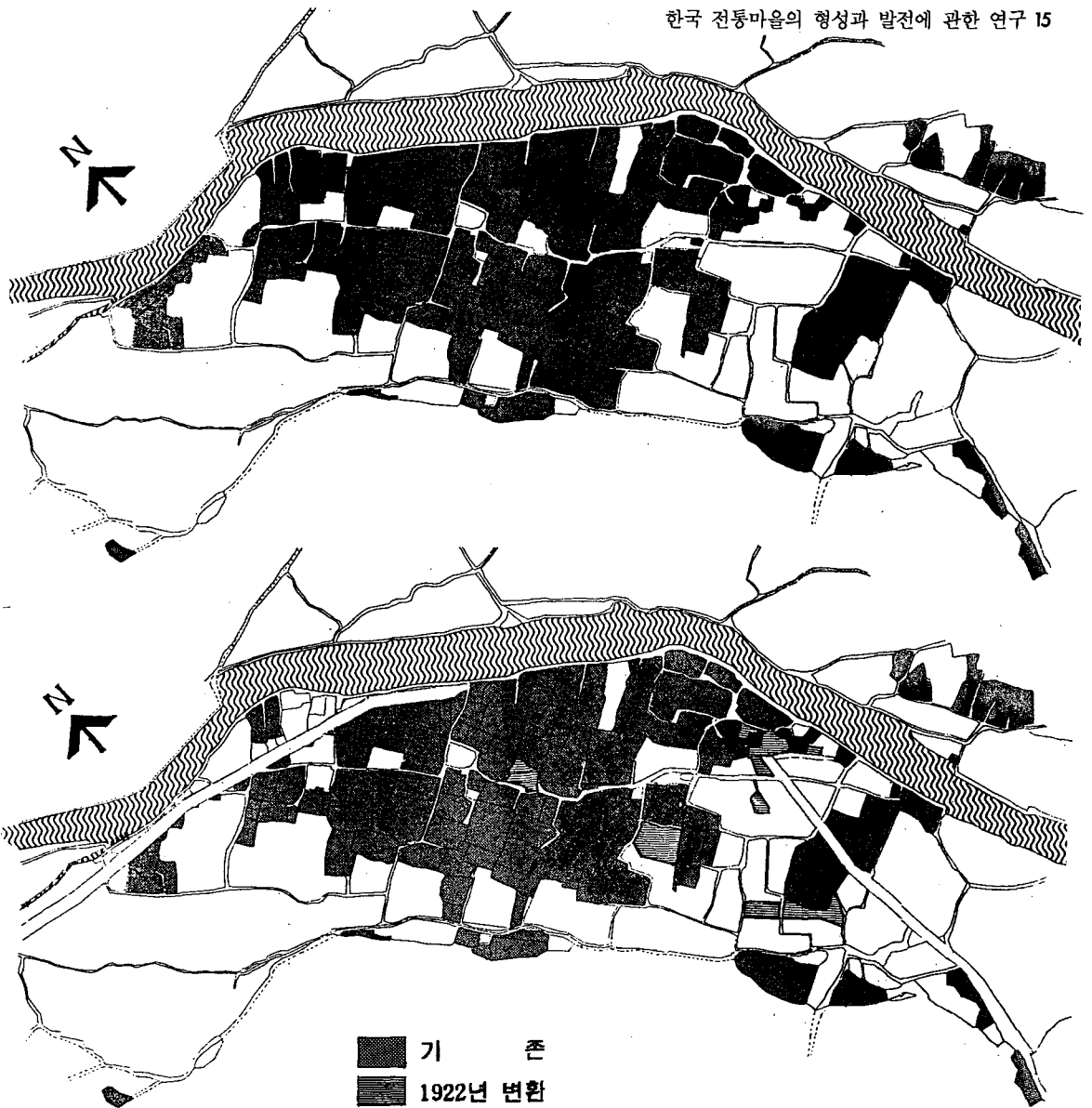


그림. 4 1922년의 대지분포도

북단의 江岸부터 제방을 쌓기 시작함으로써 하천 주변에 있던 미세한 대지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림. 4 참조)

(3) 1938년의 상황(3단계)

1914년의 대지 161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볼때

시는 제방이 축조되기 전으로 폭우에 내가 범람하여 마을 전체가 모두 물에 잠기어 많은 사람이 죽고 가옥이 파괴되었던 대홍수이다.

1938년까지 64 필지가 분할되어 대지 26필지, 하천 및 제방부지 42필지, 전담 7필지가 증가한다. 또한 전과 담 28필지가 대지로 지목변환된다. (p. 16의 그림. 5 참조)

1914년에서부터 1938년도까지 단계마을 대지의 단계별 변화의 특징은 큰 규모의 대지는 분할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하천이나 제방, 그리고 도로의 건설때문에 인접된 대지를 중심으로해서 분할되거나 지목이 변환된다. 또한, 주거지군에 포함되어 있거나 주거지군에 인접한 전담은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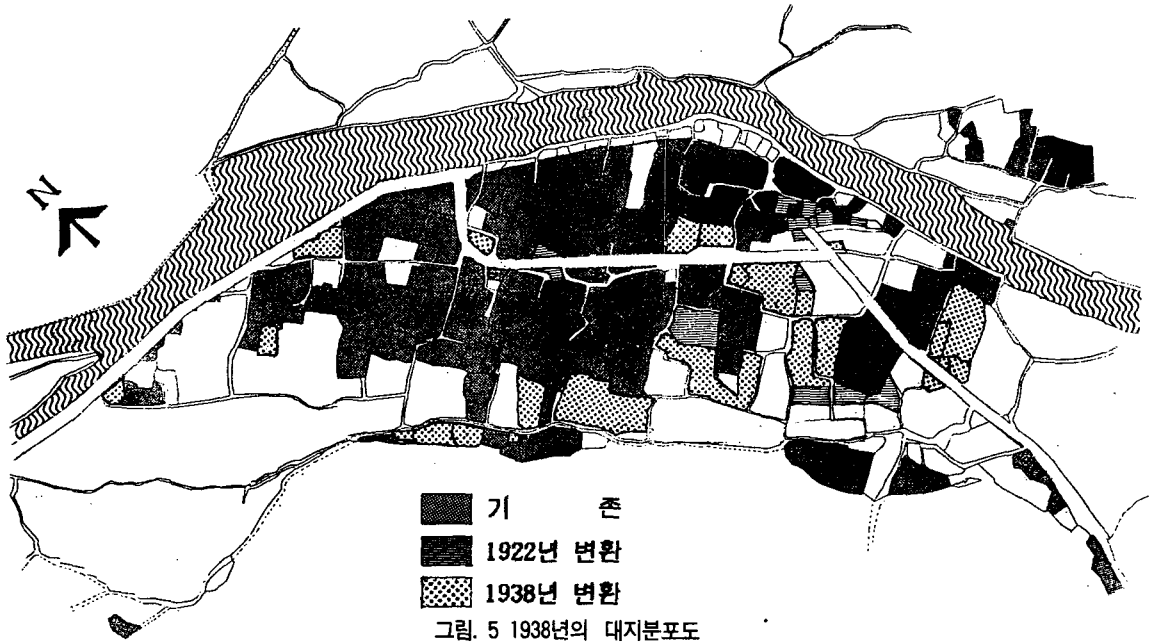


그림. 5 1938년의 대지분포도

군과 떨어져 있는 전답보다 쉽게 대지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는데 1922년보다 1938년의 상황이 그 변화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의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지가 분화됨과 동시에 주로 마을진입부 쪽의 논과 밭이 대지로 전용됨을 알 수 있다.

4-2. 마을 공간의 영역 구분

마을에 있어서 영역의 정의는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행정적인 구역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영역,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영역, 매패행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제영역, 친교로 이루어지는 사회영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신분계층의 측면과 자연지리적인 측면에서 마을의 영역을 살펴 보았다. 신분계층의 측면은 성씨별 대지 소유정도와 계층별 구분을 통해 1914년까지의 주거지군의 형성과 질서, 그리고 그것의 영역을 분석해 보았다.

(1) 성씨별 대지소유정도와 주거지영역 구분

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1914년도의 대지 소유권자를 근거로 하여 당시 査定된 지적도와 대조하여 확인해 본 결과 단계마을의 지배적인 성씨인 권씨와 박씨의 주거지는 마을의 중앙부에서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권씨는 주로 북쪽에 박씨는 주로 남쪽에 거주하여 대립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을의 입구에서 볼때 권씨의 주거지가 이마을의 중심적 위치이며, 박씨주거지보다 더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을에 입향한 시점의 차이와 세력간의 균형이 이루어져 씨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영역구분이 생기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조선시대인 1678년부터 1789년까지의 단성현 호적대장 기록당시 번성하고 있던 유씨는 마을중심부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그 잔존 후세들의 주거지가 양 성씨들의 주거지 틈에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17의 그림.6 참조)

한가지 가정으로 이 마을에 여러 성씨가 차례로 연고를 따라 입향하면서 두개의 성씨가 우세하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선 윤씨의 터전에 유씨가 들어와 서로 세력균형을 이루다가, 먼저 쇠약해지는 윤씨를 권씨가 대체하며 그후 다시 유씨를 박씨가 대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

6) 임영배 외1, 주암댐 수몰지역의 정주공간에 관한 연구 (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권 2호(1988. 4.), p.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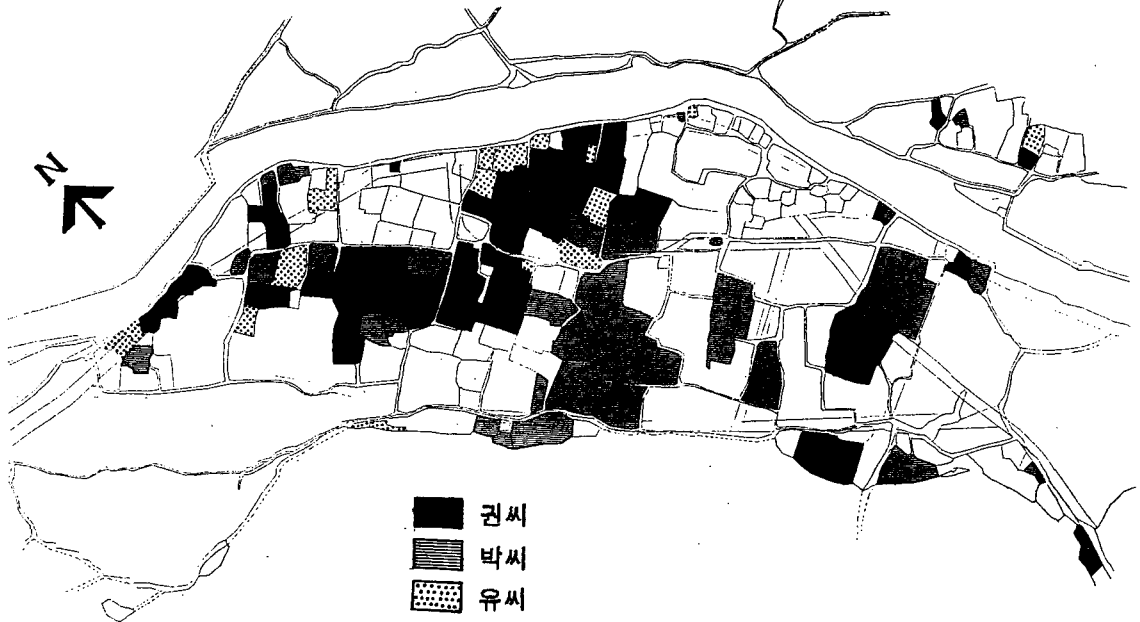


그림. 6 주요성씨별 주거지 분포도

면 유씨의 주거지를 권씨가 이어받고 유씨의 주거지를 박씨가 이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권씨와 박씨의 대립과 공존은 17세기 초경 유씨와 유씨의 대립과 공존의 재반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14년 당시 단계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21개 성씨중 권씨와 박씨가 소유했던 대지는 161필지 중 78필지이며, 면적으로는 전체의 58.4%에 이른다. (<표 2> 성씨별 대지소유현황 참조)

(2) 계층별 영역 구분

전통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성씨의 宗家와 주거지는 풍수나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 즉, 그 지역의 가장 높고 밝은 지역이나 마을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고 점차로 후손이 성장함에 따라 분가하여 역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곽에 자리잡는다. 지배세력에 봉사하는 하층민이나 서민이 주변부에 자리잡는 등의 위계적 서열로 마을영역이 계층화 되면서 하나의 마을공간이 형성된다.

단계마을의 경우 1개의 중심부와 3개의 주변부로 계층별 영역을 나눌 수 있다.

(A) 중심부 : 중앙에 있는 권씨종가와 박씨종가를 각각의 중심으로 권씨는 북쪽으로, 박씨는 남

<표 2> 성씨별 대지소유 현황

성 씨	필지수(필)	면적합계(평) ⁷⁾	면적비율(%)
권	43	8,130	28.0
박	35	8,846	30.4
김	19	2,338	8.1
유	16	1,857	6.4
이	15	2,365	8.1
최	8	1,146	3.9
(국가)	5	2,050	7.1
강	4	490	1.7
정	3	417	1.4
기타12성	13	1,426	4.9
계	161	29,065	100.0

쪽으로 광범위하게 자리잡는다.

(B) 주변부1 : 권씨, 박씨 일가에 고용된 외거노비들과 상민들의 주거지로써 마을의 동쪽 川邊을 따라 북단과 동단에 분포되어 있다. 예전에는 하천의 범람이 적었으므로 대홍수 후 제방이 건설되기전까지는 하천에 인접하여 가옥들이 많았음이 1914년도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7) 본 연구에서 면적의 단위를 坪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은 구 토지대장의 기재가 평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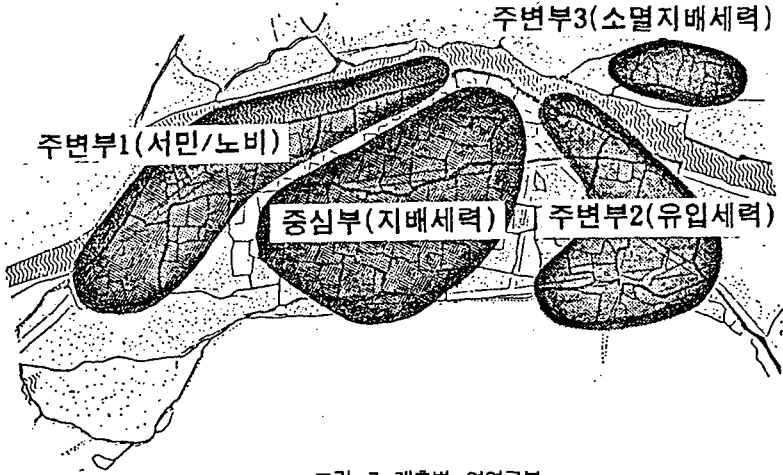


그림. 7 계층별 영역구분

(C) 주변부2 : 마을의 진입부에 해당되며 시장을 중심한 주거지가 된다. 남쪽 하천에 인접하여 규모가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로 여느 마을과는 다르게 유통의 중심지로서 외지인의 출입이 빈번했으며, 그 결과 시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주거군이 형성됨으로 해서 마을 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14년부터 1979년까지 진입부 주거군의 대지소유와 지목변환을 살펴보면 외지인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큰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외지에서 유입한 세력은 주택규모나 대지 규모에서 볼 때 중심부의 지배세력에 대항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D) 주변부3 : 별도지역인 남단은 조선시대에 유씨의 씨족세력이 지배했던 곳으로 옛 지배세력이 소멸되어 가는 부차적 중심부로 볼 수 있다.

계층별 주거지의 영역 구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이 된다.

(3) 대지규모별 분포정도

대지 규모와 위치, 형상은 대지가 갖는 고유한 장소성과 위계를 나타낸다. 1914년도의 이 마을 대지는 모두 161필, 29,065평으로 한 대지의 평균면적은 180.5평이 된다. 권씨와 박씨소유 대지는 모두 78필, 16,976평으로 개수 대비 48.4%, 면적 대비 58.4%에 이르며 한 대지의 평균면적은

217.6평이 되어, 이들소유의 대지가 타 세력에 비해서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소유 대지는 마을의 중심부 쪽에 자리잡고 있고 대지의 형상도 정형적이어서 이들이 마을의 주인임을 실감하게 한다.

반면에 비교적 협소한 100평미만의 대지는 72개로 전체에 대해 개수 대비 44.7%로 비교적 높으나 한 대지의 평균면적은 55.3평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권씨와 박씨 이외의 타성들의 소유이며 외곽 쪽에 위치하고, 대지의 모양도 비정형적이다.

결국 권씨와 박씨는 대지의 소유에 있어 대지 수, 면적, 위치, 형상에 있어서 타 세력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다. (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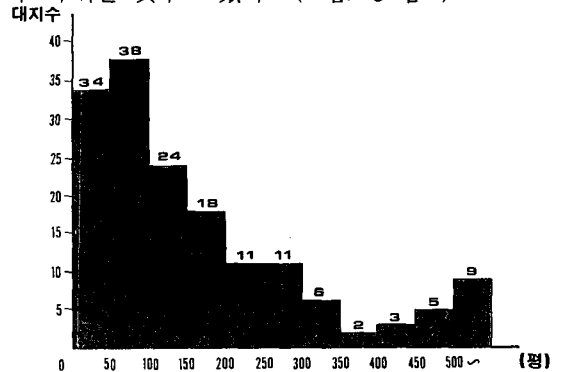


그림. 8 대지규모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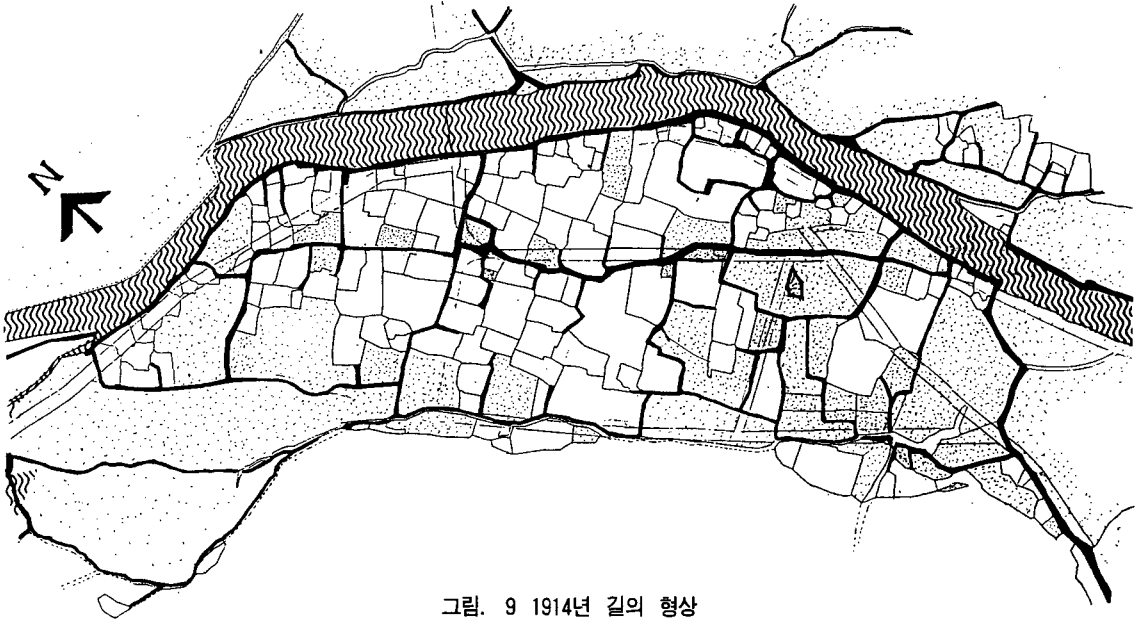


그림. 9 1914년 길의 형상

5. 길의 형성 과정

5-1. 길의 체계와 형성

전통마을의 길은 장소들을 연결하는 기능의 통로만이 아니고 장소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길의 구분에서도 위계와 영역을 찾을 수 있다.

구 지적도와 마을주민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하여 1914년도 길의 형성을 탐구하였다. 마을내 주요 길의 체계는 우선 세갈래, 즉 마을중앙을 가로 지르는 길, 그리고 마을의 동편과 서편에 길게 자리한 길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길들은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이 나는 지점에서 서로 만나서 결국 마을을 순환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9 참조)

전통마을의 길은 기능적 성격에 따라 '안길'과 '샛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외부와의 연결에 있어서의 시각적, 심리적으로 각각 한 점, 두 점으로 차이가 있다. 안길은 마을공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연결하는 길로, 마을 입구에서 시작하여 마을 후면의 경계까지 이어지는 길이며, 샛길은 안길이 형성된 후 그것에서 뻗어나와 점차로 조성되는 주거지군으로 접근을 위하여 이용되는 길이다.

단계의 경우 止馬고개⁸⁾를 分岐點으로 해서 뚝대⁹⁾와 석조좌불상¹⁰⁾을 향해 1차적 영역의 안길이 형성되는데, 외부로부터 마을안쪽으로 들어오는 진입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서 다시 두 갈래의 길이 생겨 하나는 하천을 따라서 마을의 동쪽을 돌게되고 또 한 길은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배세력의 주거군과 연결되어 마을의 북편에 서있는 뚝대까지 이어진다. 이 중앙의 길을 2차적 영역의 안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길은 중심길로써 남북의 방향성을 가지며 길을 따라서 대지와 대지 사이에 전이나 답을 두어 가옥의 연속으로 인한 시각적, 심리적 폐쇄성을 피하려고 했다. 여기서 다시 안길은 연장되어 두갈래로 나뉘어 3차적 영역을 이루는데

8) 마을로 들어오자면 작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이곳을 지마고개(峴)라고 하며, 옛날에는 단계가 양반마을이므로 이 곳에서 말을 내려야 했다고 한다.

9) 목각된 기러기를 직경 15cm 정도의 나무로 된 장대 위에 세워 놓은 것으로 얼마전 없어졌다고 한다. 솟대 또는 진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10) 고려시대 제작으로 추정되는 돌부처로서 배행국인 단계의 뱃사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장근처에 방치되어 있으나 원래 위치는 지금보다 윗쪽 1차 영역이 끝나는 지점의 강가에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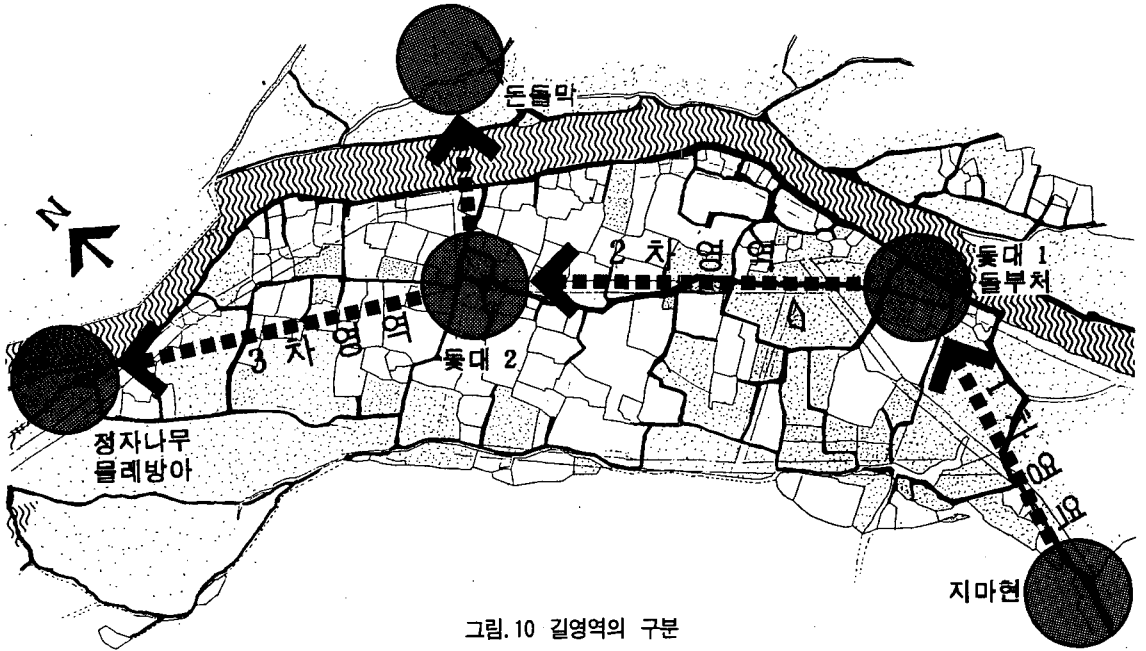


그림. 10 길영역의 구분

한 갈래는 하천을 건너 돈돌막¹¹⁾까지 이르는 길이며, 다른 한갈래 길은 마을 북쪽끝에 있는 타작마당과 물레방아가 있는 정자나무로 가는 길이다. (그림. 10 참조)

남북방향으로 형성된 이러한 안 길은 다시 동서방향의 셋길로 분화된다. 셋길은 서로 대칭적인 위치에 순환로적인 기능을 가진 서편 산밭의 길과 동편 하천변의 길을 중심길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남북축의 안길과 그것의 분화로 파생된 동서축의 셋길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의 주거지는 남북방향의 '대지축을 가지고 길과 일체로 결합된다.

5-2. 단계별 길의 체계.

(1) 1922년의 길 : 마을 진입부에 '新作路'가 건설(1918년)되면서 이전의 길의 형태가 크게 변하게 되며, 신작로가 지나가는 대지의 일부가 분할되기 시작한다.

전통마을에 日帝가 신작로라는 정형적인 도로를 처음 이식시킨 예라 할 수 있다. 담을 따라서

곡선으로 났던 길을 직선화하고 폭을 확장하므로서 길이 오늘날과 같은 도로의 의미로 전환하게 된다. 즉, 마을내의 길이 광역적 차원에서 한 지역과 다른 외부지역과의 연결을 위한 구실로서 轉用됨으로써 마을 속의 길, 단계 마을만의 길이라는 固有性이 파괴되어 나타난다. 경신수와 (1920년)로 단계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자 1922년에 北丹의 하천에 제방을 건설하면서 하천 주변의 가옥들과 길의 원래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대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에 포함 되면서 마을의 전체모습이 변하게 된다. (p. 21의 그림.11 참조)

(2) 1938년의 길 : 이미 건설된 신작로가 1933-34년에 걸쳐 마을중심부를 지나 강변까지 확장되는데, 이 시기에 法勿리쪽을 잇는 교량도 건설되었다(1938년).

주거지가 밀집된 마을의 안길이 곧게 펴지면서 대지의 경계에 따라 생긴 자연스러운 길의 형태는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신작로가 건설된 부분에서 미미하게 셋길이 분화되기 시작하지만 큰 변화는 없다. 또한, 동단의 하천에 면한 길과 대지들이 제방의 건설로 인해 원래 모습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p. 21의 그림. 12 참조)

11) 강을 건너 범물로 가는 길로 가다가 6-700m 떨어진 곳에 있던 바위로 이곳에 오면 지마현에서 내렸던 말을 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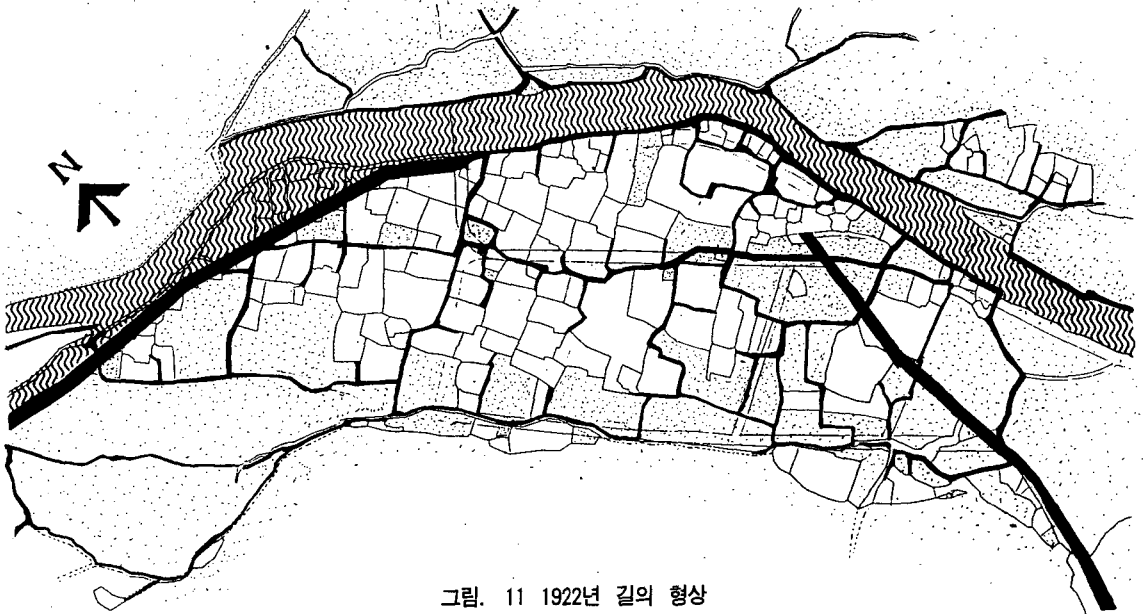


그림. 11 1922년 길의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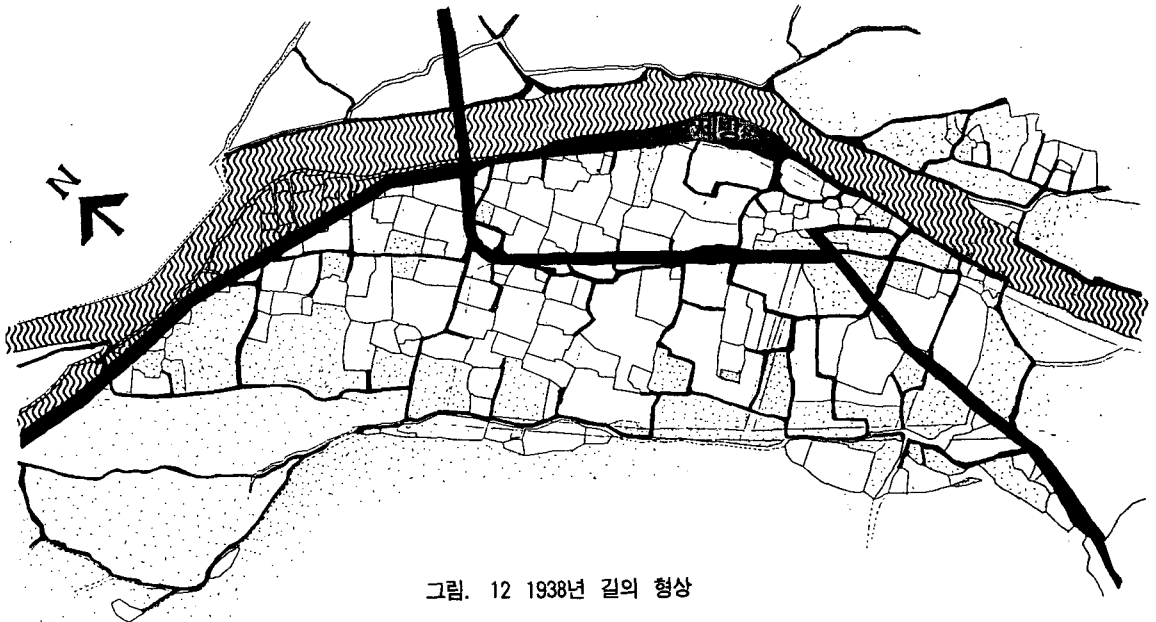


그림. 12 1938년 길의 형상

(3) 1954년의 길 : 이전의 마을 북쪽 끝에서 부터 남쪽 끝까지 건설되어 있는 제방 위로 길이 형성된다. 既設된 신작로와 마을입구에서 분기되어 서편 산 밑에 나있던 길을 따라 새로운 도로가 형

성(1942년) 되면서 도로에 면한 전답과 대지가 분할된다. (p. 22의 그림. 13 참조)

(4) 현재의 길 : 1950년대 후반을 지나 19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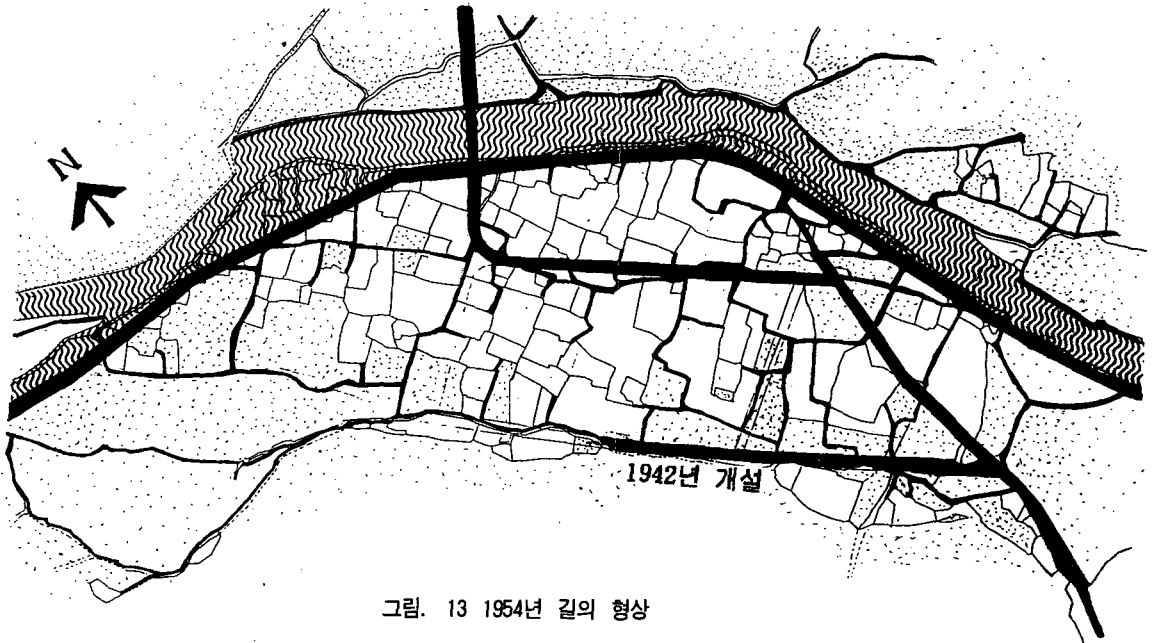


그림. 13 1954년 길의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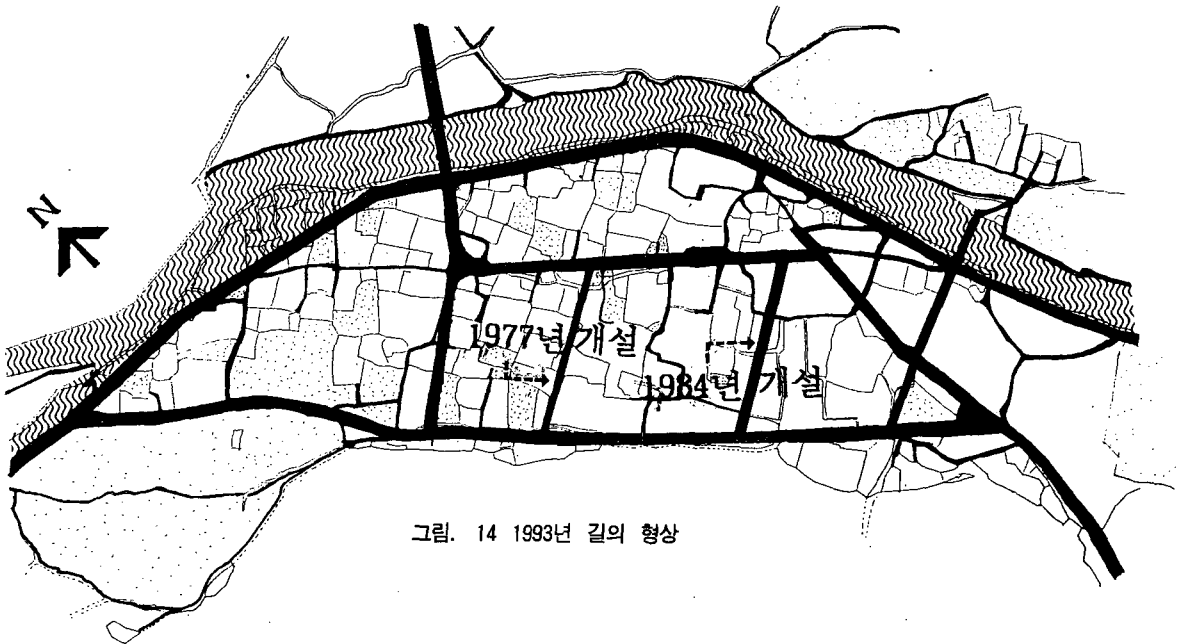


그림. 14 1993년 길의 형상

대까지 단계마을 도로의 경우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70년 이후 새마을 사업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동단

과 마을의 중심길 사이를 연결하는 새마을 도로가 형성되며, 그후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 도로가 증가 한다. (그림. 14 참조)

1914년까지 전통마을의 특성을 보여주는 전통적 길이 존재하던 단계마을에는 일제의 단계적인 신작로설치에 의해 길의 고유성이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홍수후의 제방건설과 1970년대 이후의 도로개설에 따라 기존마을의 공간구성요소인 길의 위계나 영역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균질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길과 거기에 딸린 주거지가 마을전체에 걸쳐 균질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각 주거군이 갖고 있던 장소성이 취약해지게 된다. 또한 길에 면한 주거군의 담장은 자연스러움이 배제된 획일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결국 단계마을에서 길의 발전은 전통취락의 해체과정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5. 결론

단계마을의 역사는 500년 이상이 되며 마을의 선주민은 柳씨이었으나 그 세력이 차차 약화되어 간 반면 후에 유입한 권씨와 박씨는 그 세력이 매우 번성하여 조선후기에는 우수한 씨족마을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위세는 일제기초기에 정점에 달

하였고 그후 차차 쇠하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주민구성, 대주택의 소유 등에서 타성씨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 생활관의 쇠퇴와 인구의 도시이동에 따라 씨족적 공동체의 존재는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

마을의 대지는 권씨와 박씨에 의해서 과점되었고, 대지는 시간에 따라 증가되는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분화했으며 논과 밭이 대지로 전용된다. 대지의 분화와 전용은 중심부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변부에서 활발하다.

전통적 길이 존재하던 단계마을에는 일제의 신작로설치에 의해 길의 고유성이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파괴는 홍수후의 제방건설과 1970년대 이후의 도로개설에 따라 계속되어 현재의 전체적으로 균질한 도로망이 조성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호적대장, 근대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중심으로 마을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본 기초적 단계로서, 향후 근대의 호적기록 등의 자료에 대한 조사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될 때에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이규성, 전통취락의 주거유형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산청 단계리를 중심으로-, 이광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3. 9.
- _____, 지역건축의 규범적 질서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부논문집 제1호, 1989. 2.
- 한필원, 농촌 동족마을 공간구조의 특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2.
- 김정민, 한국근대 행정제도 및 조세제도에 따른 도시한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상 하권), 1980. 6. 30.
-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7. 15.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Traditional Village in San-Cheong

Lee, Kyu Sung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Kim, Il Jin

(Professor, Yo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more positively and concretely the entity of traditional village through the quantitative and scientific analysis process using positive data. Dan-Gye, a traditional village in San-Cheong, has been populated since more than 500 years ago because of its ideal conditions for settlement. In this study, the fluctuations on the numbers of households in Dan-Gye were analyzed from the first settlement era to the present, and the transformations of housing sites and roads since 1913 were also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village Dan-Gye has a history of more than 500 years, and the first inhabitants were the Ryus. As time went by, the Ryus' power became weak gradually, but the powers of the Kwons and the Parks who had flowed later into this village became prosperous to make up a prominent family village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Such powers had reached the peak in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although the powers became weak gradually after that time, those two families have overwhelmed other families in population and possession of large houses until now. But as the confucianism in everyday life fell off and the inhabitants moved to cities, the existence of a family community became meaningless.

2) The Kwons and the Parks have possessed the large parts of the village's housing sites. As time went by, the sites have been divided and fields have been changed to housing sites for the increasing families, and such division and change have been made chiefly on perimeter areas.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ad in Dan-Gye where traditional roads existed began to be destroyed by Japanese construction of new roads, and such destruction has continued due to the bank construction after a flood and the road constructions after 1970s.